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학도서 진로 바꿔 '배우 꿈' 실현… 협상가 맡아 안방 복귀



연합뉴스

이제훈은 학창 시절부터 배우를 꿈꿨으나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공학도의 길을 걷다가 자퇴했다.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에 대한 꿈을 다시 살려 2006년 '진실 리트머스' 2007년 '밤은 그들만의 시간', 2008년 '약탈자들' 등 주로 독립영화에서 단역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2011년 영화 '파수꾼'에서 친구 관계에 집착하는 상처 입은 10대 권기태 역을 맡아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청룡영화제 신인남우상을 수상해 재능을 뽐냈다. 같은 해 영화 '고지전'에서는 중대장 신영일 대위 역을 연기해 20세에 마주한 전쟁의 광기를 제대로 표현해 인상 깊은 연기로 부일영화상 신인 남자연기상 등 신인상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2012년 개봉한 이용주 감독의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이승민 역(엄태웅 분)의



과거 시절 역을 맡아 수지(배수지 분)와 호흡을 맞췄다. 이어 드라마 '패션왕' '점쟁이들'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의무 경찰 제대 후 2016년 영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으로 복귀했다. 2017년 '박열' '아이 캔 스피크', 2023년 '노량: 죽음의 바다', 2024년 '탈주'에 출연했고 2016년 '시그널', 2017년 '내일 그대와', 2018년 '여우 각시별', 2021년 '모범택시' '무브 투 헤븐 :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맹활약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휴먼코미디 '아이 캔 스피크'에서 9급 공무원 박민재 역을 맡아 나옥분 역의 국민배우 나문희와 최고의 연기 호흡을 펼쳐 호평받았다. '탈주'에서는 10년 만기 제대를 앞두고 탈북을 꿈꾸는 북한군 병사 임규남 역으로 열연했다.

다양한 연기로 감탄을 자아내는 이제훈이 8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되는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협상의 기술'은 전설의 협상가로 불리는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전문가와 그 팀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산인그룹 M&A팀장 윤주노는 준수한 얼굴과 탄탄한 피지컬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설적인 협상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백사(白蛇)라 불릴 만큼 냉철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사람과 소통할 때는 인간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다.

윤주노를 기존과 차별화된 특별한 캐릭터로 받아들였다던 이제훈은 "캐릭터가 가진 협상가로서의 완벽에 가까운 내면이 외적인 첫 인상에서 납득이 가게 표현하려고 했다. 속내를 알기 쉽지 않고 어떠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매력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인류애를 넘나드는 윤주노의 '협상의 기술'은 어떨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이제훈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사진**) 한 호실을 2017년 8월 37억7200만 원에 매입했다. 공급면적 248.53㎡(약 75.18평)·전용면적 198.219㎡(약 59.96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2024년 7월 매매된 145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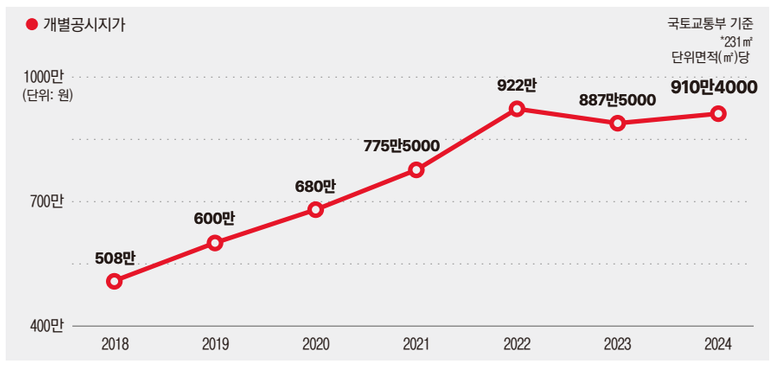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서울숲이 근처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2017년 분양 당시 3.3㎡(약 1평)당 분양가 4750만 원으로 서울 최고 분양가를 경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평균 경쟁률이 2.1:1에 불과했지만 이후 주변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인기가 치솟아 고급단지로 탈바꿈 했다.

규모 9.0의 대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했고 벽체 철거나 실내 구조 변경이 불가한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지어져 구조 변경이 자유롭다는 특징도 지녔다. 또한 일반 아파트 대비 두꺼운 콘크리트 슬라브와 바닥 완충제, 2배 이상의 천장 공간을 통한 층간소음을 최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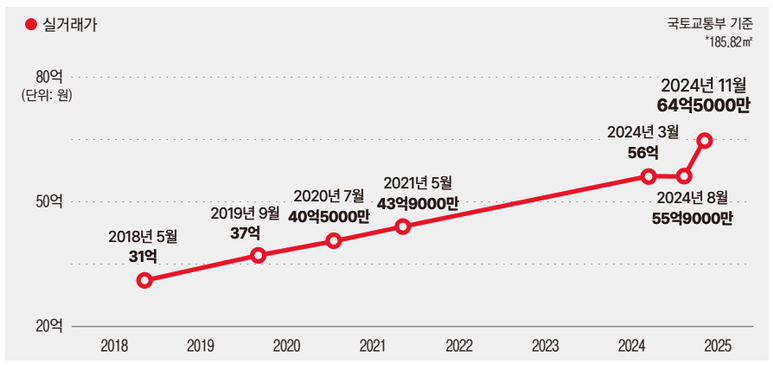
단지 내 골프연습장·사우나·헬스장·GX룸·카페테리아·펫 케어룸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며 차량을 이용해 강변북로와 성수대교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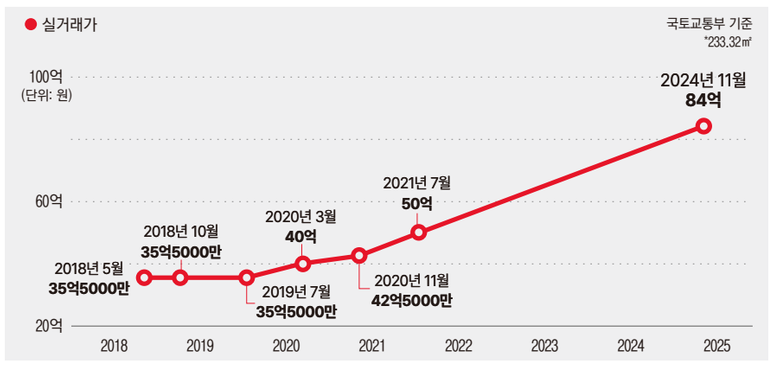
빌딩



트리마제



갤러리아포레



원빈 현)배우



원빈(본명 김도진)은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20세 때 상경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오디션에 지원했다. 케이블 TV 제일방송 신인 연기자 공모에 응시해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1997년 KBS2 드라마 '프로포즈'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뒤 MBC 캠퍼스 드라마 '레디고'에서 부잣집 도련님 한승주 역을 맡아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내면은 쓸쓸한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했다. 2000년에는 KBS2 드라마 '가을동화'에 출연해 일약 스타덤에 올라 한류 스타가 됐다. 2001년 '킬러들의 수다'를 통해 스크린에 본격 진출했으며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으로 관객 수 1174만 명을 모아 천만 배우로 거듭났다. 이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를 거쳐 2010년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다. 2013년 배우 이나영과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뒤 2015년 5월 화촉을 밝혔다.



박헌준 전)프리드라이프 회장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중학교에 진학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서라벌대 장례지도과·중앙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종합레저 대표·전국상조협회 회장·제천시경제인연합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그는 2002년 '철저한 봉사정신·새로운 고객감동·정직을 통한 신뢰'를 사훈으로 내걸고 울산에서 프리드라이프의 전신인 현대종합상조를 설립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장례 물품들을 정찰제로 바꾸면서 업계를 선도했으며 창업 1년 만에 2만 명, 2년 후에는 5만 명으로 회원 수를 급격히 늘렸다. 2013년 웨딩·여행·제사상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몸집을 불린 뒤 2014년 프리드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같은 해 업계 5위 기업인 한라상조를 인수하며 영향력을 끌어올려 상조업계 1위에 올랐다. 2020년 4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3000억 원에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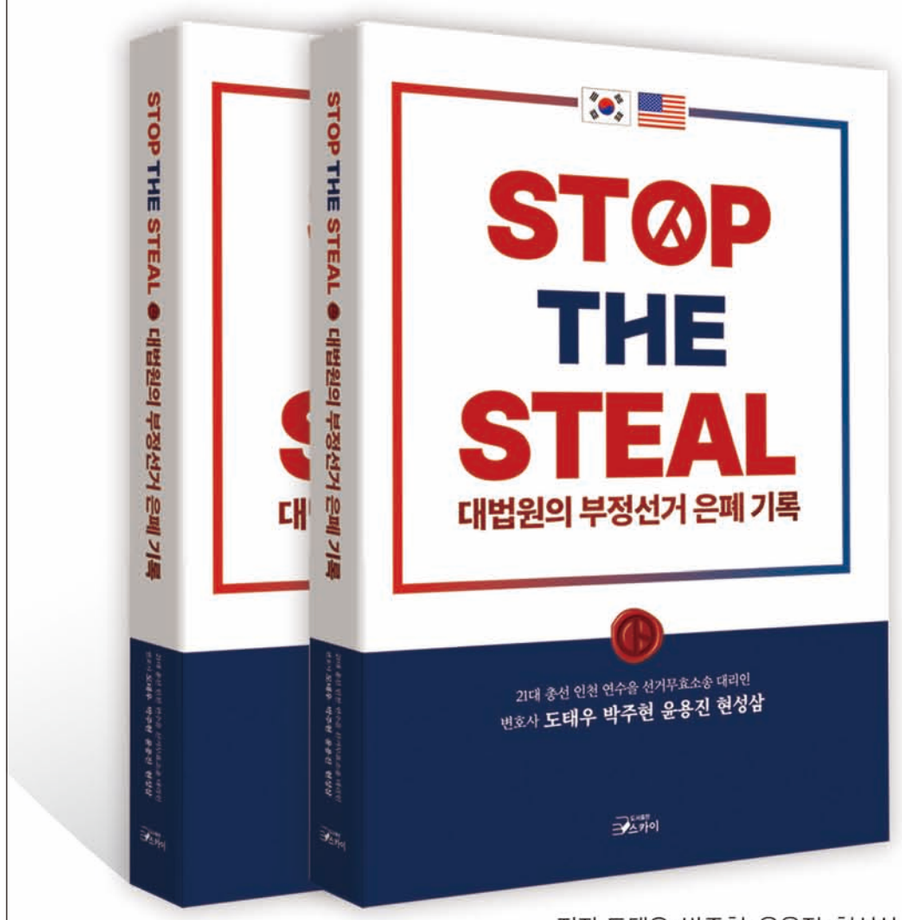


문장휘 현)문일케미칼 대표이사



문장휘 문일케미칼 대표이사는 단국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그가 설립한 문일케미칼은 휴지통·서랍장·수저통·물병·컵·접시·포크 등 주방 및 식기·욕실·정원 등에 쓰이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3년 서울 도봉구 창동의 이마트 창동점 개점에 맞춰 이마트와 수저통 납품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다. 품질 및 디자인 면에서 고객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재래시장에도 납품을 했고 품목 확대로 사업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거래 업체가 줄어 난국에 봉착했다. 당시 문 대표는 납품하는 생활용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고급화·연구개발에 시간을 투자했다. 플라스틱 생활용품 업계에서 최초로 디자인실을 운영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품 생산라인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마트는 문일케미칼의 최대 파트너가 됐다. 문일케미칼은 납품 품목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러빙홈' 제품 비중을 대폭 늘렸다.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감당하신 본 소송의 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아무 이름 남김을 바라지 않고 온갖 지탄과 야유 속에서도 긴 세월 꿋꿋이 선거정의를 바로 잡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도둑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 인사말 중

저자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 220쪽 | 15,000원

도서출판 스카이 구입 문의 02)522-6595